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2년...확 바뀐 광주 창업생태계

코로나 시기 23%·8% 증가한 당구장·독서실 4%·34% 감소
관광업 4% 감소 후 12% 급증...업종별 창업 열기 엇갈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2년만에 광주지역 창업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

방역 완화가 변곡점이 돼 사업체 수가 팽창을 거듭하거나, 바뀐 문화 세대의 영향을 받아 지속해서 내리막을 걷는 등 업종별 창업 열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6일 국제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8만4천288곳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인 2022년 4월(8만126곳)보다 51%(4천142곳) 늘었다. 다만, 업종별 창업 수요의 온도차는 컸다.

당구장과 독서실은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사업체 수가 488곳, 371곳 수준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인 2022년 4월 기준 588곳, 399곳으로 각각 22.5%, 7.5% 증가했다. 하지만 해제 이후 창업 열기가 꺾이면서 올해 1월 기준 576곳, 262곳으로 1년9개월 만에 각각 3.6%, 34.3% 줄었다.

반대로 사업체 수가 급증한 업종도 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발맞춰 정상화 수순을 밟아간 여행업계가 대표적이다.

2020년 1월 기준 사업체 수가 417곳이었던 광주지역 여행사는 2년3개월 만인 2022년 4월 399곳으로 4.3% 감소했다. 전 세계 방역조치 완화 이후 해외여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446곳으로 다시 11.7% 증가했다.

급변한 경기 흐름에 냉각된 업종도 있다. 부동산 중개 업체는 2020년 1월 4천132곳에서 부동산 호황 시기였던 2022년 4월 4천765곳으로 15.3%나 급증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 고금리와 건설 경기 불황 등 악재가 쌓이면서 올해 1월 기준 4천744곳으로 1년8개월 동안 21곳(0.4%) 감소하며 보험세를 보였다.

코로나 기간 증감세를 반복했던 다른 업종과 달리 지속적으로 외형을 확대한 업종도 있다. 팬데믹을 거치며 보완된 배달 시장에 수혜를 입은 외식업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면서 호황을 맞은 스포츠업이 단적인 예다.

일식 음식점(266곳→358곳, 34.5%↑), 외국식 음식점(384곳→516곳, 34.3%↑), 패스트푸드점(1천97곳→1천409곳, 28.4%↑), 한식 음식점(9천968곳→1만822곳, 8.5%↑) 등은 올해 1월 기준 4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단원고 학생 250명 등 승객 304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5명은 실종 상태인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기억식이 열렸다. 사진 뒤쪽은 곳곳에 찢긴 상처와 녹슨 상흔으로 뒤덮인 세월호. > 관련기사 2·4·6면 /김애리 기자

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커피음료점(1천676곳→2천743곳, 63.6%↑), 편의점(1천51곳→1천349곳, 28.3%↑) 등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같은 기간 실내스키인공폭설점(110곳→198곳, 80%↑), 헬스클럽(234곳→354곳, 51.2%↑), 스포츠시설운영업(250곳→301곳, 20.4%↑) 등 스포츠 관련 사업

체 수도 일제히 늘었다.

이와 달리 변화된 소비·사회 동향에 따라 내리막을 걷고 있는 업종도 적지 않다. 간이주점(191곳→121곳, 36.6%↓), 호프주점(2천265곳→1천665곳, 26.4%↓), 피시방(400곳→303곳, 24.2%↓), 노래방(1천70곳→910곳, 14.9%↓)의 감소세가 특히 컸다.

또한 지속된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구내식당(399곳→307곳, 23%↓)과 코로나 이후 이용객 감소로 휴·폐업 등이 잇따른 목욕탕(181곳→150곳, 17.1%↓),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부진을 겪는 옷가게(3천186곳→2천885곳, 9.4%↓)도 사업체 수가 줄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관

계자는 "코로나 시기 배달업 호황 속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배달전문점, 커피음료점 등 외식업 관련 창업이 대폭 늘고 반대로 노래방, 호프주점 등은 부진을 겪었다"며 "현재는 방역 완화, 경쟁 과다, 불경기로 창업 열기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광주·전남 대학 4곳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단독 전남대·목포대...연합 동신대·광주보건대

7월 말까지 '실행계획서' 제출...8월 말게 본지정

전남대학교·동신대학교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4곳이 '2024 글로벌대학30' 첫 관문을 통과했다. > 관련기사 3면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벌대학위원회 예비지정 평가 결과, 전남대를 비롯해 총 20개(33개교)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예비지정한 5개 대학에 한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을 유지, 추진 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경우 올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남대학교(단독)는 지난해 글로벌대학30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혁신기획서에 광주·전남 초광역 메가 캠퍼스 구축, 중국·하노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보완해 예

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올해 예비지정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목포대(단독), 동신대·조양대·목포과학대(연합), 광주·대구·대전보건대(연합) 등 총 3곳이다.

목포대는 세계 유일의 친환경분야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무탄소 선박, 그린 해양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목표를 설정, 향후 전남도립대와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단독으로 신청해 예비지정됐다.

동신대는 초당대, 목포과학대와 함께

지역 내 사립 일반대·전문대간 연합으로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모집단위 통합, 기초지자체 특성과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광주보건대는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함께 보건의료계열 전문 대학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 초광역 연합을 구성해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최종 글로벌대학(10개 안팎) 지정은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다기 기자

법무법인 거북이 설립인사

저는 이번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든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거북이의 대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 34기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4년 4월 17일

법무법인 거북이 대표변호사 김태호 올림

- 구 성 원 : 김환기, 양이림, 홍정표 변호사
- 주 사 무 소 : 광주 서구 삼무연하로112, B동 302호(차평동, 제갈랑비즈타워)
- 대 표 전 화 : T. 062-710-0900, F. 062-710-0907
- 광 주 지 사 분 사 무 소 : 광주 동구 준법로10, 2층(지산동)
- 서울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4, 503호(서초동, 화평빌딩)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